

## 메리 로쓰: 로만스와 소넷의 여성적 변용\*

이진아 (한국외대)

근대 초기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 있어서 제대로 자란 여성의 모델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육아와 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종과 침묵과 정절의 덕을 갖춘 여성이었다.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극히 제한되었고, 대학과 같은 지식 기관이 증가할수록 여성과 여성성을 통제하려는 욕망 또한 증가하였으며, 당시 꽃피우기 시작한 해부학과 같은 과학 분야와 예술 이론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남성의 시선을 통해 여성과 여성성, 여성의 몸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이 전체적인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그녀의 『자신만의 방』(*A Room of Her Own*)에서 가정하였던 셰익스피어의 여동생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울프의 상상대로 아무런 작품도 발표

---

\* 이 연구는 200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만은 아니다. 중세 시대의 크리스틴 드 피잔(Christine de Pisan)과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 그리고 마저리 켐프(Margery Kempe)와 노리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의 뒤를 이어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근대 초기에는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근대 초기 영문학 연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중의 하나는 바로 신역사주의 학자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묻혀 있던 16, 17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기존 작품들도 새롭게 조명 평가되었다는 점일 것이다.<sup>1)</sup> 이전에는 잊혀졌으나 1970년대 이후 재발견된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은 지금까지의 정전의 개념을 수정하여 영문학사를 다시 쓰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데 국내의 근대 초기 영문학 연구는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하는 극작가들과 밀튼 그리고 형이상학과 시인들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만

- 
- 1)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ed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s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Mary Beth Rose, ed.,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Lite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Carol Levin and Jeanie Watson, eds., *Ambiguous Realities: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Anne M. Haselkorn and Betty S. Travitsky, eds.,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Margaret Patterson Hannay, ed., *Silent But for the Word: Tudor Women as Patrons, Translators, and Writers of Religious Works*; Elaine V. Beilin, *Redeeming Eve: Women Writers of the English Renaissance*; Tina Krontiris, *Oppositional Voices: Women as Writers and Translators of Literature in the English Renaissance*; Pamela Joseph Benson, *The Invention of the Renaissance Woman: The Challenge of Female Independence in the Literature and Thought of Italy and England*; Barbara K. Lewalski, *Writing Women in Jacobean England*; Mary Prior, ed., *Women in English Society 1500-1800*; Helen Wilcox,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500-1700*. 근대 초기 영국 여성과 여성 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근대 초기 유럽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맞물려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Constance Jordan, *Renaissance Feminism: Literary Texts and Political Models*; Margaret L. King, *Women of the Renaissance*; Ian Maclean, *The Renaissance Notion of Woman*;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근대초기 여성에 대한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는 “다른 목소리”(The Other Voices)라는 제목으로 근대 초기 유럽 여성들의 작품들과 당시 여성에 대한 글들을 시리즈로 출판하는 중이기도 하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는 근대 초기 영국에서 그러했듯이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묻혀있는 형편이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영문학 연구에 있어서 근대초기 영국 여성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마도 아프라 벤(Aphra Behn) 이전에 가장 뛰어난 여성작가로서 영문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메리 로쓰(Mary Wroth)와 그녀의 대표적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 소개를 하고자 한다.

메리 로쓰는 근대 초기 영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시드니(Sidney) 가문의 한 사람으로 영문학사에서 “최초”라는 인상적인 형용사를 여러 개 가진 여성작가이다. 그녀는 로맨스 『먼가메리 백작부인의 유래이니어』(*The Countesse of Mountgomeries Urania*, 1621)를 쓴 영국 최초의 여성 로맨스 작가이며, 또한 『앰필란쓰에게 부르는 팸필리아의 노래』(*Pamphilia to Amphilanthus*, 1621)라는 제목의 연작 소넛을 출판한 최초의 영국 여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랑의 승리』(*Love's Victory*, 1988 첫 출판)라는 목가극을 썼다. 이렇게 로쓰는 오백 쪽이 넘는 로맨스와 백편이 넘는 서정 연애시를 쓰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며 여성 작가의 문화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여성으로서 독자적인 문학적 권위를 세웠는데, 그녀의 문필활동이 삼촌인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과 고모인 메리 시드니 허버트, 팸브로크 백작부인(Mary Sidney Herbert, Countess of Pembroke)이 이미 이룩한 문학적인 권위의 도움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로쓰가 산문 로맨스 장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삼촌 필립 시드니의 『아케이디아』(*Arcadia*)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메리 시드니의

2) 메리 로쓰의 경우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의 연구 논문은 Park Hyunggi, “Marriage in Early Modern England: The Traffic in Daughters in the *Arcadia* and the *Urania*,” “Contingent Desire: Love and the Paradox of Petrarchanism”; Ivan Cañadas, “Questioning Men’s Love in Sir Philip Sidney’s *Astrophil and Stella* and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등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상황은 메리 시드니 허버트, 에밀리아 러니에(Aemilia Lanier), 엘리자베스 캐리(Elizabeth Cary)와 같은 대표적 근대 초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문필활동은 로쓰가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sup>3)</sup> 따라서 로쓰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까운 가족들의 영향과 도움을 통해 물려받은 가족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생애

메리 로쓰는 1586년 로버트 시드니(Robert Sidney)와 바바라 게이미지(Barbara Gamage) 사이의 6명의 자녀들 중 장녀로 태어났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듯이 메리 시드니 로쓰의 친가는 엘리자베쓰 여왕과 제임스 왕 시기에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문으로서, 그녀의 문학적 재능이 천부적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삼촌인 필립 시드니는 정치가, 외교관, 군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인, 비평가로 기념할 만한 인물이고, 고모인 펨브르크 백작부인 또한 깊은 신앙, 학식, 높은 덕망을 가진 여성으로 엘리자베쓰 여왕의 궁정에서 여왕을 섬겼고 또한 문인들의 후견인으로 유명하다. 로쓰의 아버지 로버트 시드니 또한 시를 쓰기도 하였다. 아마도 로쓰는 어린 시절 작품을 쓰고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는 이 매우 가까운 친척들의 모습을 보았을 지도 모르며, 이러한 가족 관계는 그녀가 작가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리하여 필립 시드니의 로맨스 『아케이디아』, 연작 소넷 『에스트

3) 1621년에 출판한 『유래이니어』의 속표지는 저자인 로쓰를 이렇게 소개한다: “로버트 레스터 백작님의 딸이요 한결같은 명성을 지니신 필립 시드니경과 펨브르크 백작 영부인의 조카”(Daughter to the right Noble Robert Earl of Leicester, and Niece to the ever famous, and renowned Sir Philip Sidney knight, and to the most excellent Lady Mary Countess of Pembroke). 이는 작가로서 메리 로쓰의 정체성이 친가인 시드니 가문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말해준다.

4) 시드니 가족 간의 문학적 영향 관계는 근대 초기 영국 문학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저서, 논문들로는 J. J. Jusserand, *The English Novel in the Time of Shakespeare*; Janet MacArthur, “‘A Sydney, Though Unnamed’: Lady Mary Wroth and Her Poetical Progenitors”; Gary Waller, *The Sidney Family Romance: Mary*

로필과 스텔라』(*Astrophil and Stella*), 펨브로크 백작부인의 번역 작품들과 시들, 그리고 로버트 시드니의 소넷 등,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문학적 유산들이 메리 로쓰의 장르선정과정과 작품들 속에 녹아들게 된다.

세 명의 여자 형제들과 두 명의 남子들과 함께 로쓰는 펜스허스트의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 누린 가정의 행복과 풍요로운 벤 존슨(Ben Jonson)이 「펜스허스트」(“To Penshurst”)에서 기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곳에는 게이미지라 불리는, 그대[펜스허스트]의 작은 숲도 있지.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거나 몸 단련을 할 때면  
꼭 맛갈스런 사슴으로 접대하시던 분의 이름을 딴 그 숲.

Thy copse too, named of Gamage, thou hast there,  
That never fails to serve thee seasoned deer  
When thou wouldst feast or exercise thy friends. (“To Penshurst” 19-21)

펜스허스트는 필립 시드니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로버트 시드니의 영지였는데, 이곳에서 로쓰는 자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은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로쓰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 시드니 가문 출신의 여성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명의 여성은 고모 메리 허버트 시드니이다. 메리 시드니는 로쓰의 고모일 뿐 아니라 대모(godmother)이기도 하였으며,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

---

*Wroth, William Herbert, and the Early Modern Construction of Gender*; William Chapman Waller, “An Extinct Country Family: Wroth of Loughton Hall”; Mary Ellen Lamb, *Gender and Authorship in the Sidney Circle* 등이 있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로쓰의 문학적 역량을 삼촌이나 고모의 문학적 재능의 관점에서 평가절하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므로 “영향의 염려”(the anxiety of influence)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할 것이다.

하게 된다. 『유래이니어』에서 로쓰가 메리 시드니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은 팸필리아가 사랑하는 앰필란썬스의 어머니인 나폴리의 여왕이다. 남편 허버트 경을 여인 고모처럼 나폴리의 여왕도 남편을 여의었는데, 여왕은 시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고 작품의 1부에서는 팸필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나폴리의 여왕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뒷받침하듯이, 어린 로쓰는 고모의 보살핌을 자주 받았고 두 집안은 밀집한 교류가 있어 어린 로쓰는 런던과 윌셔(Wiltshire)에 있는 펨브록 가문의 저택들을 자주 방문했으며, 허버트 집안의 세 명의 사촌들과도 함께 자랐다(Hannay, “Your virtuous” 20-23). 둘째 앤 허버트(Anne Herbert)와 로쓰는 이후 궁정에서 함께 지냈고, 셋째 필립 허버트(Philip Herbert)는 이후 먼가메리 백작(the earl of Montgomery)이 되었으며 또한 로쓰가 『유래이니어』를 헌정한 그녀의 절친한 친구 수전 드 비어(Susan de Vere)의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로쓰에게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장남 윌리엄 허버트(William Herbert)는 정치가요 시인이 되었다. 『유래이니어』에 등장하는 팸필리아와 앰필란썬스의 이야기가 로쓰와 윌리엄의 관계에 대한 자서전 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로쓰는 윌리엄을 평생에 걸쳐 사랑했음을 짐작케 한다. 윌리엄은 『유래이니어』의 앰필란썬스에 대한 묘사에서도 시사되듯이 시적 재능이 뛰어나 로쓰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남성이었겠지만, 메리 피튼(Mary Fitton) 사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sup>5)</sup> 무절제한 여성 편력의 경험이 많았다. 로쓰가 그녀의 작품들에서 끊임 없이 사랑의 성실성에 대해 강조하는 점도 로쓰가 윌리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겪은 고충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1604년 각기 다른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된다. 1604년 9월 27일, 당시 열일곱 살이던 로쓰는 오래된 프로테스탄트 가문 출신으로 제임스 왕의 절친한 사냥친구인 로버트 로쓰 경(Sir Robert Wroth)과 결혼하게 되고, 윌

5) 메리 피튼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녀인데 윌리엄과의 연애로 인해 1601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그녀와 결혼하기를 단호히 거절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궁에서 추방하기까지 하였다.

리엄은 쉬루즈베리 백작(the earl of Shrewsbury)의 딸인 메리 텔벗(Mary Talbot)과 결혼한다. 1599년 로쓰가 12세 되던 때부터 이미 혼담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데(Waller 112), 시드니 가문의 로버트 시드니는 당시 엘리자베스 치세후기 궁정에서 중간쯤 위치한 인물로 재산보다는 가문과 인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로쓰 가문은 시드니 가문처럼 헨리 8세 때 수도원이 해체되던 시기부터 변영을 누려왔으며 부유하고 한창 상승세를 타는 지주 가문이었지만 궁정에서의 지위와 인맥이 없었다. 그러므로 궁정과 밀접한 교류를 가진 시드니 가문은 로쓰 가문의 정치적 야심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결혼 상대가문으로 더 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정략결혼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도 없었고 서로간의 관심사에 어떤 공통점도 없었기에 로쓰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벤 존슨이 “로쓰 부인이 질투심 많은 남편과 합당하지 않은 결혼을 하였다”(Waller 114 재인용)는 논평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래이니어』에서 가족의 압력에 의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벨라미라(Bellamira)의 이야기와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로쓰 자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의 결혼은 그 출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시드니 가문은 번성하기는 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빈약하여 메리의 지참금 문제로 결혼이 연기되기까지 하였다. 두 사람이 결혼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메리의 아버지 로버트 시드니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내용은 상세하게 지적하지 않지만 메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는 뭔가 사위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알았소.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아낼 수 없었소. 사위가 메리에 대해 어떤 항변도 제기하지 않겠고 자신에 대한 메리의 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 것 외에는. 곧 어떤 고약한 일이 생길 것이요. 그러니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모두 만날 때까지 모든 일들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기를 비오. (Waller 114 재인용)

결혼 후에도 메리와 로버트 두 사람은 관심사나 기질에 있어서도 서로 크게 달라 결혼 생활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로버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에섹스 시골에서 사냥과 낚시를 하고 시골 땅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제임스 왕의 사냥친구이기도 한 반면에, 메리는 런던에서 앤 여왕의 측근으로서 궁정의 가면극이나 여흥에 즐겨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쩌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불만이 메리가 정서적으로 여전히 시드니 가문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는 윌리엄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측들이 두 사람의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나, 조세핀 A. 로버츠가 가정 하듯이(Roberts, "The Knott" 123), 메리 로쓰 자신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유래이 니어』 속에 등장하는 결혼 제도 속의 남녀 관계와 다른 종류의 대안적인 관계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과 유혹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결혼 후 10년이 넘은 1614년에 메리 로쓰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은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남편은 많은 부채를 남기고 죽는다. 그녀의 개인적인 불행은 계속되어 1616년 하나 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고 아들이 물려받았던 남편의 영지는 남편의 친척인 다음 상속자에게로 넘어가고 만다. 로쓰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계속 애를 쓴 기록들이 남아 있으나, 부채 문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그녀를 괴롭히게 된다. 남편이 죽은 후 로쓰는 궁을 떠나는데, 그녀가 궁을 떠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로버츠와 해내이의 추측에 의하면(Roberts and Hannay 147), 제임스 왕이 로쓰에게 보인 호의로 인한 앤여왕의 질투심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로쓰가 궁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한 것은 아니며, 1619년 앤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 결국 궁으로 돌아오게 되며 왕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된다.

시드니 가문과 로쓰 가문의 한 사람으로 그녀의 명예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1620년 경 사촌인 윌리엄 허버트와의 사이에서 윌리엄과 캐서린(Katherine)을 낳은 사건에서 비롯된다(Roberts, *First Part* lxxiv). 작품의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로쓰 개인의 자서전 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다보면 작품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로쓰의 작품이 처

음 출판되었을 때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점은 바로 그녀의 작품 속에 당대의 사건과 인물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윌리엄과 로쓰의 관계를 잘 나타낸 팸필리아와 앰필란썬스의 관계나 벨라미라의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팸필리아와 앰필란썬스의 비밀결혼장면이 『유레이니어』에 등장하고, 앰필란썬스는 자신과 팸필리아는 “결코 풀 수 없는 매듭”(I. fol.14)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허나, 로버츠가 주장하듯이(Roberts, “The knott” 114-21), 그것만 가지고 허버트와 로쓰가 교회의 인정을 받은 각각의 공적인 결혼과 별도로 서로 사적인 혼인관계(*de praesenti marriage*)였는지 아닌지를 추정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허버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윌리엄의 모습을 보여주는 페어 디자인(Fair Design)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단지 그는 앰필란썬스를 아버지로 추정하고 찾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출생은 분명히 로쓰에게 사회적으로 부담감을 주었을 것이다. 1624년에 존 챔벌린(John Chamberlain)이 더들리 칼튼경(Sir Dudley Carleton)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로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과부로 있던 한 귀부인이 최근에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이 곳 사람들이 이쑤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귀부인은 학식이 높고 글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Roberts, *First Part* lxxiv 재인용)

이 귀부인이 로쓰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높은 신분의 과부로 두 명의 사생아를 낳고 출판을 한 여성작가로서 메리 로쓰 외의 여성을 생각할 수 없다는 로버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윌리엄 허버트와의 사랑이 메리 로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바바라 르왈스키(Barbara K. Lewalski)와 같은 학자는 당시 귀족들에게 있어서 그런 불륜 관계나 그로 인한 사생아의 출생이 그다지 수치스럽거나 비밀스런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윌리엄 허버트와의 연애 사건은 오히려 로쓰에게 시드니-허버트가

문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출판하는 일을 더 장려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Lewalski 249). 허나 두 아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로쓰는 주위 문인들로부터 이미 시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가 펨브록 백작부인처럼 문인들의 후원인 역할을 했을 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만, 그녀에게 바쳐진 헌정작품들은 모두 그녀를 시드니 가문의 한 사람인 작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쓰는 당대의 문인들 중 벤 존슨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605년에 존슨의 가면극 『흑인』(*Masque of Blackness*)에 출연하였고, 1608년에는 그의 또 다른 가면극 『미인』(*Masque of Beautie*)에 출연하였으며, 벤 존슨은 그의 극 『연금술사』(*The Alchemist*)를 로쓰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펠브록 백작부인이 문인들의 뮤즈요 님프였던 것처럼, 로쓰도 그렇게 불렸으며, 1621년 사촌인 필립 허버트의 부인의 이름을 딴 『먼가메리 백작부인의 유래이니어』와 연작 소넷 『엠펔란썬스에게 보내는 팸필리아의 노래』를 출판하였다. 로쓰는 1618년과 1620년 사이에 『유래이니어』 1부를 쓰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Roberts, *First Part* xvi), 그 이유는 그녀가 작품을 쓰는데 이용했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아마디스 드 골』(*Amadis de Gaule*)의 영어번역본이 4권으로 1618년과 1619년 사이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그리고 로쓰의 책이 1621년 7월 13일 서적출판조합(the Stationer's

---

6) 『아마디스 드 골』은 원래 스페인어로 쓰인 로맨스로서, 15세기 초 혹은 16세기 초 경에 스페인의 가르시아 오르도네스 몬탈보(García Ordóñez Montalvo)가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모아 편집한 기사도 로맨스이다. 이 작품은 로마 식민지 시기 이후 그리고 아쉴(Arthur)가 출현하기 이전의 영국을 배경으로 기사들의 모험이야기를 복잡다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은 골(Gaul)의 왕 페리언(Perion)과 아름다운 엘리시나(Elisena)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강에 버려졌다가 업둥이로 자란 당시 가장 위대한 기사인 아마디스(Amadis)이다. 이 작품은 16세기에 유럽의 각국어로 번역되어 유럽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로맨스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니콜라스 드 에르베레이(Nicholas de Herberay)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Amadis de Gaule*)을 앤써니 먼데이(Anthony Munday)가 영어로 번역하였다. 먼데이는 자신이 번역한 책을 먼가메리 백작인 필립 허버트에게 헌정하였으며, 이 책을 번역하는데 백작 부인 수전의 도움을 크게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Company)에 등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에 앞서 책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유레이니어』의 두 번째 부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출판되지는 않았고 시카고의 뉴베리 도서관(the Newberry Library)에 로쓰의 자필원고로만 남아있었다. 이 원고는 페어 디자인(Fair Designe)이라는 젊은 기사가 엠필란쓰스를 찾아 가는 모험 중간에 끝나는데, 작중 화자는 이 기사가 엠필란쓰스의 서자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 에피소드를 로쓰의 전기적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두 번째 부분이 쓰인 시기를 어렵짐작해 볼 수 있을 수 있다. 1626년에 펴브로크 백작 윌리엄 허버트는 로쓰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유산상속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조카 필립을 상속자로 정하였다(Roberts, *First Part* xvii). 그리고 이 작품의 헌정자인 수전 허버트가 1629년 성홍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이 사건들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유레이니어』의 첫 번째 부분이 출판되자, 로쓰의 작품에 대해 사나운 풍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시 궁정을 중심으로 한 독자들이 그녀의 작품 속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과 사건들을 우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sup>7)</sup> 그래서 로쓰는 그녀의 작품을 실화 로맨스(roman à clef)로만 본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 혹은 명예 훼손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에드워드 데니(Lord Edward Deny)의 비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8)</sup> 데니는 자신과 그 가족들이 로쓰의 작품 속에서 모욕을 당했음에 분개하여 로쓰에게 “당신이 쓴 외설적인 이야기와 호색적인 놀이만큼이나 두꺼운 천상의 노래와 거룩한 사랑의 글을 써서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충고하였다(Beilin, *Redeeming Eve* 211 재인용). 이러한 비난에 대해 로쓰는 자신의 작품 속에 동시대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공공연한 혹은 암묵적인 암시가 있다는 점을 철저히 반박하고 부

7) 17세기 영국 산물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실제 인물들과 사건들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내포한 로맨스가 크게 인기를 얻었고 많이 쓰였다는 점이다. 이 실화 로맨스는 제임스 시대 궁정에서 엄청나게 유행하였으며 로쓰도 실화 로맨스의 요소들을 그녀의 로맨스에서 사용하였다. 당시 실화 로맨스의 유행에 대해서는 Roberts, *Poems* “Introduction” 28 참조.

8)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berts, *Poems* 31-36을 참조.

인하였다.

데니의 충고에서도 드러나듯이, 로맨스를 펴낸 로쓰에 대한 비난은 당시 여성들의 글쓰기소재나 주제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성에게 허용된 글쓰기 예법에 따르면, 경건한 신앙심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종교적인 글들이 여성적인 문학영역이었는데, 로쓰는 그 영역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로쓰에 앞서 금기의 영역을 넘어선 여성으로는 마아가렛 타일러(Margaret Tyler)가 있는데, 타일러는 1578년 디에고 오르투녜스 데 깔라오라(Diego Ortuñez de Calahorra)의 산문 로맨스 『군주다운 덕행과 기사정신의 귀감』(*The Mirroure of Princely Deedes and Knyghthood*)을 번역 출판하였다. 번역이라는 점에서 타일러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로맨스 주제를 다룬 책을 번역한 것에 대해 타일러는 변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sup>9)</sup> 그런데 로쓰는 번역물의 제한을 넘어서 직접 로맨스를 씀으로써 문학 영역에서 남성적 주제 여성적 주제 등 성별화된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로맨스, 여성의 욕망이 주체가 되는 소넷을 통해 로쓰는 그전에 어느 영국 여성도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척해 나간 것이다.

로쓰를 침묵시키려는 세간의 비난에 잠시 전술상 주춤했는지 모르나, 그녀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1부 만큼이나 긴 2부 『유래이니어』를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비록 출판은 하지 않았으나, 1620년대에 목가극인 『사랑의 승리』도 집필하였다. 이후의 로쓰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녀는 시골에서 칩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쓰는 64세가 된 1651년 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로쓰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영미 학자들에 의해 싹트기 시작하였고<sup>10)</sup> MLA 문헌에 등록된 출판된 연구 논문들은 박사학위 논문들

9) 타일러의 번역물은 영국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작가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며 출판한 최초의 세속적인 작품이다. 타일러의 변호의 글에서 근대 초기 서구 여성이 여성의 글쓰기를 어떻게 합법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갤러거의 글을 참조할 것 (Catherine Gallagher, "A History of the Precedent: Rhetorics of Legitimation in Women's Writing").

을 포함하여 약 150여 편일 정도로 학문적으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로쓰가 문필활동을 통해 자신의 계급과 젠더에 문화적으로 부여되던 역할들에 매우 급진적인 도전을 하였던 만큼, 그녀와 그녀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작가로서 로쓰가 젠더와 장르, 주체적 자아의 형성과 성별의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로쓰가 주요하게 다루는 이러한 주제들을 대표적 작품들 속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남성적 로맨스 장르의 여성적 변용

로쓰는 영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유래이니어』라는 로맨스를 집필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로맨스에는 수백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들, 서로 얽히고설킨 이야기들, 괴물이나 거인들과 싸우는 기사들의 모험이야기, 상징적인 장소들, 마술사들과 초자연적인 영들, 잃어버린 신원을 찾아가는 등장인물들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인 로맨스는 이러한 모티프들을 통해 로맨스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사랑, 우정, 덕, 영웅심, 모험, 한 국가나 왕조에 대한 찬양 등이다. 『유래이니어』도 바로 이러한 로맨스적 요소들과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로맨스라고 부르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남성적인 로맨스 세계 속에서 독자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로맨스적 요소들은 여성작가인 로쓰의 시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며, 여성의 시각을 통해

10) 아마도 패리 그래햄(Parry Graham)의 “Lady Mary Wroth’s *Urania*,” *Proceedings of the Leeds Philosophical and Literary Society, Literary & Historical Section* 16 (1975): 51-60이 현대 학자의 연구논문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로쓰의 작품들은 개리 월러(Gary Waller)가 1977년 『팜필리아가 엠필란씨에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의 현대 영어판을 처음으로 편집 출판하였고, 조세핀 로버츠(Josephine Roberts)가 로쓰 시전집 (*The Poems of Lady Mary Wroth*, Louisiana State UP, 1983)과 『유래이니어』 1부(*The First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by Lady Mary Wroth*, State U of New York P, 1995)와 2부(*The Second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by Lady Mary Wroth*,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를 편집 출판하였다.

수정이 되며 로맨스를 “남성의 의식보다는 여성의 의식을 탐구하는 수단”(Lewalski 244)으로 변용시켰다. 우선 로쓰는 남성작가의 전유물인 로맨스 장르를 택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종류의 글들에 주로 제한되어 있었던 여성의 문필 영역의 한계를 용감하게 넘어설 수 있었다. 로쓰는 로맨스의 형식을 통해 여성의 생각과 느낌, 행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 행동 영역을 넓히기까지 하였다. 남성작가들이 그들의 로맨스에서 남성인물들의 모험에만 주력하고 여성인물들은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종속된 인물로 묘사하고 여성적인 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엘리자베쓰 시대의 로맨스 전통을 이어받은 로쓰의 『유래이니어』에는 아마존의 여성전사, 충실하고 가정적인 여성, 사랑에 빠진 순진무구한 목녀, 사랑스런 궁정의 귀부인 등 다양한 전형적인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로쓰는 자신의 로맨스에서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sup>11)</sup> 『페어리 여왕』(*Faerie Queene*)에<sup>12)</sup> 등장하는 브리토마트(Britomart)와 같은 여성전사 주인공 대신에 덕망 높은 여왕이요, 충실한 연인이요 시인인 팸필리아(Pamphilia)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팸필리아는 특히 여성 혐오자들에 의해 여성과는 거리가 매우 먼 덕으로 간주되어 온 정절(constancy)의 덕의 화신일 뿐 아니라 가정의 사적인 영역과 침묵의 금기를 넘어

11) 여성작가인 로쓰와 남성 작가인 스펜서가 재현하는 여성군주 엘리자베쓰 여왕의 모습들은 팸필리아와 브리토마트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들 작가들의 성별과 그들의 여성성 재현 양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 두 작가의 관련 연구로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Elaine V. Beilin, “‘The Only Perfect Vertue’: Constancy in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Maureen Quilligan, “Feminine Endings: The Sexual Politics of Sidney’s and Spenser’s Rhyming”; Josephine A. Roberts, “Radigund Revisited: Perspectives on Women Rulers in Lady Mary Wroth’s *Urania*”; Shannon Miller, “‘Mirrours More then One’: Edmund Spenser and Female Authori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Jacqueline T. Miller, “Lady Mary Wroth in the House of Busirane.”

12) 현재 스펜서의 서사시는 한국에서 『선녀여왕』 혹은 『요정여왕』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번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Faerie”는 “Briton”이나 “Saxon”처럼 종족(tribe)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 “페어리”는 “선녀” 혹은 “요정”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색슨”인이나 “브리튼”인과 같은 인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페어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는 공적인 활동과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왕이다. 팸필리아는 일생동안 자신의 백성에게 충실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진실한 우정을 보이는 친구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깊은 감정을 시로 쏟아내는 시인이다.

『유래이니어』의 1부와 2부를 구성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주로 두 왕가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이다. 첫 왕가는 나폴리(Naples)의 왕과 왕비의 자녀들인 앰필란썬스, 레어니어스(Leonius), 유래이니어이고, 둘째 왕가는 모리어(Morea) 왕과 왕비의 자녀들인 팸필리아, 파실리어스(Parselius), 러신디(Rosindy), 필라커스(Philarchos), 필리스텔라(Philistella)이다. 첫 번째 왕가는 메리 시드니의 가문의 자녀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두 번째 왕가는 로즈의 친정인 로버트 시드니의 가문의 자녀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왕자와 공주들이 움직이는 세계는 초자연적인 배경을 가진 이상향이 아니라, 터키, 루마니아, 알바니아, 독일, 헝가리, 프리기아, 슬라보니아, 영국, 나폴리 등 유럽과 아시아 전역이다. 이 속에서 주인공들은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또 자신의 뿌리를 찾아 방황하며 살아간다.

남성작가들의 로맨스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사랑과 전투라고 할 때, 로즈의 로맨스는 우선 사랑 그리고 결혼에 가장 중심적인 초점을 두는데, 그 사랑과 결혼의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유래이니어』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들은 용감한 전사들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기는 하지만, 모두 자신들의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랑에 불성실한 남성주인공들과는 달리 여성주인공들은 사랑에 충실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도 항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스펜서도 『페어리 여왕』의 미완성 원고 「변화의 노래」(Mutability Cantos)에서 성실의 덕(Legend of Constancy)을 다루려고 했듯이, 성실이란 주제는 변화해가는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르네상스 문인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자주 다루어지던 덕목이었다. 당시의 시대적 정서를 반영이라도 하듯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토도 “언제나 한결같이”(semper eadem)로, 여왕은 바로 이 항구한 성실성을 군주로서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았다. 로즈도 변함없는 성실함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성실의 주체는 여성이다. 특히 주요 여성 주인공인 팸필리아는 자신의 사랑에 성실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로쓰는 팸필리아의 항구한 성실을 통해 여성적 영웅심을 자신의 로맨스의 중심 주제로 부각시킨다. 여성인 팸필리아를 통해 성실함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유래이니아』가 물려받은 남성적 전통을 수정하는 중요한 측면인데, 그것은 여성은 워낙 변덕스러운 존재로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불성실하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고 남성작가들은 남성을 성실성의 주체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쉽 없이 흘러가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선택에 충실한 여성의 성실성을 탐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로쓰가 주로 활동한 제임스 1세 때 궁정의 문화는 특히 남성 중심적이었는데, 팸필리아를 비롯한 여성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세계로서, 이들 주인공들의 주요관심사인 사랑과 결부된 결혼은 부계적인 권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세계에서 여성은 아버지, 남자 형제들, 혹은 남편에 의해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이루어지는 삼각관계로 인해 생기는 잔인한 고문이나 살해를 당하고(예를 들어, 1부 1권에서 삼각관계로 인해 질투하는 남편에게 거의 살해당할 뻔 한 리메나 이야기와 결혼식 날 연인과 도망치다 붙들려 죽은 어느 신부이야기), 공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을 강요당한다(예를 들어, 1부 2권에서 헝가리의 멜리신다). 팸필리아, 유래이니아, 베랄린다(Veralinda) 등 주요 여성주인공들은 사랑의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열정에 굴복할 것인지, 자기통제를 할 것인지, 자신의 사랑에 항구할 것인지 변할 것인지, 사랑의 감정을 숨길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고뇌하고 숙고하며,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한다. 로쓰는 이들 주인공들이 대처하는 각각의 방식을 통해 각기 다른 여성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부분적이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결혼을 하거나, 정략결혼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혹은 정략결혼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연인과 성실하면서도 정결한 연인관계를 유지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사랑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며 그 선택에 성실하다는 점이다. 로쓰가 재현하는 이 여성적인 영웅심은 여성의 자기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성실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

『유레이니아』에서 팸필리아와 앰필란씨스의 사랑의 관계가 작품 1부와 2부의 가장 기본적인 설화를 구성하고 있다. 앰필란씨스는 그의 이름이 “두 사람의 연인”(“Am-philanthus,” lovers of two)을 의미하듯이, 팸필리아의 사랑에 자주 불성실하고 다른 여성들과도 (뮤살리나, 루차아나, 안티사 등) 쉽게 사랑에 빠지고, 이로 인해 팸필리아는 배신감과 질투, 저버림 등의 고통스런 감정들에 휘둘리나, 언제나 그에 대한 사랑에 충실하다. 팸필리아는 앰필란씨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녀의 전 존재를 시험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로쓰는 그녀가 연인으로서 사랑하고 군주로서 통치하고 문인으로서 글을 쓰는 등 모든 행위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녀의 내면적 외면적 성실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팸필리아를 성실의 화신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의 성실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적인 덕에서 영웅적인 덕목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덕목으로까지 고양된다.

팸필리아는 앰필란씨스에 대한 충실한 사랑으로 인해 많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영웅적이라 할 만큼 그 사랑에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자신에게 충실하고 성실하다. 팸필리아가 성실의 덕의 핵심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1부 1권의 마지막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주인공들이 우여곡절 끝에 비너스의 왕국인 사이프러스 섬에 난파당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 섬에는 사랑의 권좌(Throne of Love)가 있으며, 유레이니아와 셀라리나(Selarina)를 선두로 하여(1.1.49) 연인들은 사랑의 힘에 의해 마술에 걸려 묶이게 된다. 앰필란씨스와 팸필리아는 이 마술에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자 사랑의 집(House of Love)의 탑들을 향해 간다.

이렇게 그들은 첫 번째 탑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욕망이라고 쓰인 글씨를 보았다. 앰필란씨스는 자신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그들은 왕족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 다음 탑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루비로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다. “용감한 여왕이시여, 이것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

시렵니까?” 그가 말했다. “이 모험을 할 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였다. “다음 탑으로 저를 데려다 줄 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음 탑에 가면 우선 그 모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과 그들 안에 있는 지극한 사랑이 탑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 주었다. 그들은 그 문을 지나 마지막 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성실”이 열쇠를 가지고 서 있었고 팼필리아가 그 열쇠를 받았다. 그러자 곧 “성실”은 모습을 바꾸어 사라지며 그녀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1.1.169)

사랑의 집은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의 거짓됨과 충실함이 시험을 당하는 곳이다. 첫 번째 탑은 큐피드의 탑, 혹은 욕망의 탑으로 사랑에 성실하지 못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런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두 번째 탑은 사랑의 탑으로 어떤 연인이든지 들어가면 그들의 사랑에 가장 많이 따르는 절투, 절망, 두려움, 희망, 갈망 등으로 고통당하게 된다. 세 번째 탑은 성실이 지키고 있는 탑으로, 가장 성실한 여성(the loyallest Lady)과 가장 용감한 남성(the valiantest Knight)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사랑의 집에 묶여 있는 연인들을 마술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된다(1.1.48-49). 인용한 부분에서도 사랑에 성실한 팼필리아와 불성실한 앰필란썬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팼필리아가 사랑에 헌신적인 반면 앰필란썬스가 욕망에 우선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 탑에서 우의적 인물인 “성실”이 건네주는 열쇠를 통해 연인들이 붙들려 있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수 있는데 팼필리아만이 그 열쇠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집의 가장 내실로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사랑에 대한 성실함이기 때문에 “성실”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그녀 자신이 성실로 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팼필리아의 마음은 성실의 덕 자체가 머무르는 곳이 되며 사랑의 집 정원에 마술에 걸려있는 연인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된다.

위의 에피소드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앰필란썬스는 강한 욕망의 소유자로 그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팼필리아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팼필리아는 신중함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터놓고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가

저다주는 고통과 회의와 절망 속에 사랑에 대한 충실성을 잃지 않으며 그 충실함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성실성을 이루어 나간다. 팸필리아와 유래이니어가 사랑에 있어서 성실을 두고 서로 나누는 대화와 언제나 상대방 역할을 하는 유래이니어의 충고와 그에 대한 팸필리아의 변호 속에는 로쓰가 팸필리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성실성이 잘 구현되어있다. 유래이니어는 끊임없이 변심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앰필란썬스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팸필리아를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그녀의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나는 그의[큐피드] 노예가 아니냐. 나는 그가 사랑받아야 하므로 사랑하고 너도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너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를 그렇게 우상시하는 것처럼 그가 그런 신적 존재는 아니라, 그들이 잡은 가엾은 새들을 보고 그들이 날아가기 전에 그것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무례한 것, 잘 길들여져 우쭐대는 착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사춘, 우리의 부족한 용기와 판단으로 인해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는 거야. (1.3.469-70)

유래이니어의 충고 속에는 팸필리아의 사랑이 큐피드의 화살에 의한 인간적인 사랑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큐피드의 사랑의 세계에서 팸필리아처럼 고귀한 태도로 자신의 사랑에 충실한 것은 남성을 우상시 하는 것이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성적인 수동성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앰필란썬스와 같은 남성을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우상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유래이니어는 팸필리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인 세상에서 사랑조차도 그 변화의 힘을 이겨 낼 수는 없으며, 팸필리아가 고집하는 것, 즉 사랑에 변함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일레인 베일린(Elaine V. Beilin)이 지적하듯이(*Redeeming Eve* 226), 신적인 차원의 사랑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팸필리아는 성실 자체인 자신의 내적인 성품에 성실함으로써 인

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적인 나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 이성적인 한계를 두고 통제하라는 충고에 대해 팸필리아는 사랑의 주체는 불충실한 앰필란썬스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성실성임을 강조한다.

오 아니야, 사랑하는 사춘, 나는 그 자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가 나를 경멸한다고 해도 그를 사랑할 것이야. 이것이 참된 사랑이야.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의 잘못을 신뢰하거나 그의 잘못에 성실한 것으로 인해 일어날 어떤 불행에도 기뻐해야만 할 것이고, 그런 구속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될 것이야. 팸필리아는 그런 생각이 열렬한 사랑의 성역인 그녀의 성실한 가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야만해. 사랑이 이렇게 나를 가르쳤듯이 나는 나의 스승이나 그 가르침을 결코 저버릴 수 없고 언제나 덕성스러운 성실성을 유지할 것이야. (1.3.470)

앰필란썬스에 대한 팸필리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며 오직 그녀 자신의 고유한 품성에 기인한다. 그녀의 성실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사랑은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팸필리아가 사랑에 충실한 것은 앰필란썬스에게 충실한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연작 소넷 『앰필란썬스에게 부르는 팸필리아의 노래』에 이르러 팸필리아의 성실성과 사랑은 신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사랑의 시련 속에서 팸필리아는 절망하여 우울하게 은둔하거나 혹은 앰필란썬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구애를 하는 대신, 문학에 전념하고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데 헌신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린다. 소넷을 씀으로서 자신의 내적인 감정의 질곡들을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또 자아를 확인해나가기도 한다. 특히 팸필리아 뿐 아니라 많은 여성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뛰어난 예술적인 기량을 발휘한다. 나폴리의 여왕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메리 시드니는 현실 세계에서

처럼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진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로쓰의 여성 주인공들은 시를 짓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는데, 『유래이니어』 속에도 50여 편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시를 짓는다. 이러한 문학적인 작업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문학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의 질곡의 고통을 넘어서 군주로서 백성들에게 헌신적인 팜필리아의 모습은 그녀의 성실성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로맨스 문학은 개인적인 욕망과 공적인 의무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분석하는데 좋은 문학적 틀을 제공하는데, 로쓰의 작품에서 이 둘은 갈등을 일으켜 분리되기 보다는 통합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로쓰는 여성의 통치 문제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팜필리아는 삼촌의 왕국을 물려받아 합법적으로 여왕이 되는데, 로쓰는 군주로서의 팜필리아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킬버리(Tilbury)에 모인 군인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녀가 비록 연약한 여성이나 왕의 심장을 가지고 신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놓았음을 강조하였듯이, 일생동안 변함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여성의 귀감이었다.<sup>13)</sup> 여왕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때에 로쓰는 헌신적인 여왕으로서의 팜필리아에게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결혼 문제를 두고 아버지와의 대화 장면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과 여왕으로서의 의무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는 리엔드러스(Leandrus)가 그녀에게 알맞은 배필이므로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는

13)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과 루이스 몬트로즈(Louis Montrose)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극적(문학적)정치적 재현능력과 당시 문학적 재현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킨 이후, 여성성과 권력과의 결합관계, 그에 대한 남성(작가)들의 불안한 혹은 애매모호한 혹은 전적인 아첨의 태도 등은 근대 초기 영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르네상스 문학에 대한 그린블랫의 대부분의 글들과 특히 몬트로즈의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the Shaping Fantasies of Elizabethan Culture: Gender, Power, Form” 참조.

데, 이에 대해 팸필리아는 자신은 여왕으로서 이미 자신의 왕국과 결혼하였으며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대답한다(1.3.262; 264). 이에 대해 아버지는 그녀의 왕국도 결혼 지참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팸필리아가 여왕으로서 가지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딸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팸필리아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그녀는 리엔드러스를 사랑할 수 없으며 그가 원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왕국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팸필리아는 개인적인 사랑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기는 하지만, 그녀는 앰필란썬스의 불충실에 절망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잘 다스리는 여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철두철미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보여준다.

팸필리아와 앰필란썬스는 작품 전체를 통해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지만, 이들의 사랑의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팸필리아가 타르타리아(Tartaria)의 왕인 로도만드로(Rodomandro)에 대해 흠모의 정을 표현하자, 이에 질투를 느낀 앰필란썬스는 결코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묶자고 (“the knott never to bee untide bee tied”; 2.1.45) 제안한다. 그리하여 유래이니어, 셀라리나(Selarina), 안티씨어스(Antissius), 알리아말러스(Alliamarus), 폴라코스(Polarchos)를 증인으로 하여 일종의 사적인 계약결혼식을 올린다. 이 에피소드를 로쓰의 전기적 사실에 비추어 해석하는 이들은 이들의 결혼이 로쓰와 허버트가 비밀 결혼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화자는 이 결혼에 대해 이 결혼이 “절대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신 앞에서 맺은 서약이므로 교회에서 올린 결혼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 결혼이므로 다음에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결혼이며, 실제로 두 사람은 그 혼약을 파기한다. 앰필란썬스는 이후 다시 옛 버릇으로 돌아가 칸디아(Candia) 여왕에게 빠지는 등 여전히 팸필리아에게 불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2부에서 팸필리아는 그녀를 흠모하고 있으며 앰필란썬스가 없을 때 그녀와 그녀의 나라를 지켜준 로도만드로와 결혼한다. 그녀가 로도만드로를 앰필란썬스

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후사를 이어줄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선택도 전적으로 팸필리아 자신의 선택이었다.

팸필리아는 이렇게 여성으로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해나가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 성실성, 그리고 남성 못지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쓰는 브리토마트와 같이 남장을 하고 남자와 같은 행세를 하는 전투적인 남성적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듯하다. 『유레이니아』에 등장하는 여성 군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직접 나가 싸우기 보다는 남성 기사들의 도움을 청하는 쪽을 택한다. 물론 작품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냥을 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기도 한다. 로쓰가 남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레아나(Nereana)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네레아나는 여러 가지 점에서 팸필리아와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며 여성으로서 군주로서의 팸필리아의 덕목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레아나는 스테리아머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팸필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을 거부하자 팸필리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스테리아머스를 찾아 나선다. 브리토마트가 아트갈(Argegall)을 찾아 나서듯이 네레아나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 나서지만, 그 모험 중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모험에 나선 네레아나는 폭풍을 만나 시실리 섬에 도착하는데, 광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알라너스(Allanus)가 그녀를 공격하여 그녀에게 집요하게 구애하며 추적하여 네레아나는 평화와 휴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침내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배고픔과 추위와 궁핍함으로 고생한 그녀는 친절을 배우게 되고(1.2.200) 오만하고 지나친 확신에 차 있던 그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아직 시실리에 남아있는 네레아나는 이제 이전에 교만했던 것만큼 겸손해지고 이전에 사람을 깔보던 만큼 부끄러워할 줄 알며 동굴에서 혼자 살면서, 약초, 풀뿌리와 바위 속에서 자란 염소의 젖을 먹고 살았다. 이전에 군주 노릇할 때

보다 더 젓 짜는 아가씨의 역할을 잘하고 극빈함으로 인해 인내하며 만족하고 만족하며 인내하며 그녀의 사랑 외에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1.2.334)

네레아나가 이전에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찾은 것이 팸필리아의 경우처럼 성실이 아니라 교만에서 비롯한 것이며, 모험을 불사하는 그녀의 기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 힘든 여정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사막이나 광야의 은수자처럼 홀로 기도하는 참회의 삶을 통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 네레아나에게 남은 것은 매우 여성적인 덕목인 인내와 사랑에 대한 헌신이다.

네레아나를 가없이 여긴 페리썬스(Perissus) 왕에 의해 구출된 그녀는 다시 여왕의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 스탈라미나(Stalamina) 왕국으로 돌아가나, 백성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팸필리아와는 달리 백성들은 그녀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순종을 얻지 못하고, 경멸은 명령을 얻지 못하기”(2.3.337)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없는 동안에 그녀의 여동생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인 그녀가 복권될 경우 “그들에게 가해질 복수에 대해 품고 있는 정치적인 두려움”(337) 때문이었다. 시실리에서 동굴 생활을 통해 사랑에 있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면 이제 감옥에 갇혀 정치적인 바닥 생활을 경험한 네레아나는 군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뛰어난 군주요 용감한 여성으로 예전의 열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감정들도 돌보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판단할 줄 알게”(1.3.496) 되었다. 베일린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모험을 나서는 여성에서 뛰어난 군주로 변신한 네레아나의 모습을 통해 로쓰가 여성의 잠재력이 남장을 하고 남성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이건 사적인 상황이건 여성의 가장 뛰어난 여성다움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해석한다(*Redeeming Eve* 225).

『유레이니어』에는 팸필리아 뿐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도 등장하는데, 유레이니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래

이니어는 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팸필리아처럼 중심인물은 아니나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유래이니어는 작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 “그녀의 존재에 대한 무지”(1.1.18)로 인해 슬퍼하는 장면과 더불어 작품이 시작된다. 이러한 첫 장면은 시드니의 『아케이디아』가 두 목동이 그들이 유래이니아가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뒤집은 것으로 두 작품의 연관관계를 암시하고 있다(Lewalski 274). 유래이니어는 어린 아기였을 때 누군가 훔쳐가 목녀로 자라며 자신의 신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곧 그녀는 나폴리 왕의 딸이요 앰필란썬스의 누이요 팸필리아의 사촌임이 밝혀지는데, 이러한 자기 신원의 확인과정이 곧 그녀의 자기 발견의 과정이다.

팸필리아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의 화신이라면 유래이니어는 사랑이 변할 때 그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인물로서 로스는 유래이니어를 통해 팸필리아와는 다른 영웅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래이니어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팸필리아의 오빠 파실리어스(Parselius)를 보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데, 파실리어스 또한 그녀에게 “홀딱 반하여 그녀가 지상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1.1.21)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열정으로 인해 유래이니어는 ‘사랑의 탑’에 갇히고 파실리어스는 달리니아(Dalinea)에게 또 열정적으로 압도당하여 그녀와 결혼해버리고 만다(1.1.102-105). 절망에 빠진 유래이니어는 멜리시어(Melissea)의 마술에 의해 치유를 받는데, 그녀는 바다에 던져지고 파실리어스와 스테리아머스(Steriamus)에 의해 구조된다. 이제 유래이니어는 파실리어스가 아니라 스테리아머스를 사랑하게 되고 파실리어스도 유래이니어에 대한 미련과 죄의식을 벗어버리며 팸필리아를 사랑했던 스테리아머스도 유래이니어를 사랑하게 된다. 이전의 정화되지 못한 유래이니어의 사랑의 정열은 물에 의해 정화되고 그녀는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모습에 놀란 필리스텔라(Philistella)에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생각에 놀랍고 신기한 변화였고, 내가 변했을 때 나는 정말 다른 애정을

느꼈어. 왜냐하면 첫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다시 사랑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 사랑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나는 마치 환상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 같이, 정신이 없고, 꿈인지 생시인지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결심했고 그래서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첫 사랑을 잃었고 두 번째 사랑을 선택하여 살고 있어. (1.2.331-32)

물의 정화 과정을 통해 유래이니어는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 성숙한 자아로 거듭 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에 빠짐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유래이니어는 곧 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신원을 완전히 알게 되어 (1.2.231), 거짓된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참된 자기 신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유래이니어가 사랑을 바꾼 것은 앰필란썬스처럼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 한 걸음 진일보한 것이다. 그녀의 변화는 자신에게 성실한 결과이며 그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온다. 유래이니어도 팸필리아와 같이 여왕이 되지만, 작품 전체에서 팸필리아와 같은 군주로서의 모습보다는 상담자로서의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그녀가 이렇게 내적으로 깊이 내려가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에 소중한 체험이 되며,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나눔으로써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게 되는 것이다.

팸필리아와 유래이니아를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여성의 성실성과 남성의 불성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의 삼각관계 등이 1부의 주요한 주제라면, 2부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에서도 여전히 팸필리아는 사랑에 성실하고 앰필란썬스는 불성실하며 그들의 관계는 계속 이야기의 중심이 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들이 자코비언 궁정에서 많이 행해진 연극, 궁정 오락들, 대규모 연회, 춤, 사냥 놀이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2부 이야기에는 또한 여러 왕국의 자녀들이 신원을 잃어버렸다가 마술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하다가 결국 신원을 되찾는 사건들도 주요한 소재로 다루어진다. 1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 자신들을

몹시 괴롭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 팸필리아는 군주로서의 공적인 삶에 보다 헌신적으로 투신하고 결국 자신과 백성들을 보호해줄 로도만드르와 결혼하게 된다.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통해 위로와 충고를 받았던 팸필리아는 그녀가 이제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충고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된다. 2부는 1부보다 로맨스적 요소, 즉, 잃어버린 아이들의 신원 찾기, 초자연적인 협조자, 여러 가지의 마술, 거인들, 악령, 신화적인 괴물들 등이 더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2부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가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로쓰의 로맨스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하여 보다 사실적인 세계에 근접하고 있기도 하다.

### 연작 소넛의 여성적 변용

남성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쓰인 로맨스를 영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쓴 로쓰는 영문학사에서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녀는 남성 시인들에 의해서만 쓰인 연작 소넛을 영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썼다는 점에서도 영문학사에서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말 엘리자베쓰 궁정에서 크게 유행했으나 이제는 그 빛이 많이 퇴색되어버린 소넛을 로쓰는 17세기 초 다시 부활시켜 남성 시인들이 확립한 소넛의 소재와 주제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앰필란썬스에게 부르는 팸필리아의 노래』(이후부터 『팸필리아의 노래』로 약칭)는 83편의 소넛과 20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판되기 전에 원고 형태로 궁정에서 돌려 읽혀지다가 1621년 『유래이니어』와 함께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주제상 『유래이니어』와 연결되며, 필립 시드니의 『에스트로필과 스텔라』(*Astrophil and Stella*)를 모델로 하여,<sup>14)</sup> 그 구조나, 시어, 이미저리 등에 있어서 엘리자베쓰 시

14) 『유래이니어』의 경우처럼, 『팸필리아의 노래』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

대 문학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인 팸필리아는 『유래이니어』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이 작품에서는 로쓰 자신의 페르소나로 등장한다. 로쓰는 이 인물을 통해 전통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온 연애시의 전통을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형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넛은 남성의 연애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소넛의 여성은 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덕과 정결, 혹은 무정한 사랑,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을 상징하였다. 항구한 성실성의 덕목을 소넛의 여성에게 부여한 남성시인은 거의 없었는데, 로쓰의 팸필리아는 남성연인의 불성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항구한 애정을 쏟는 여인이다. 이렇게 메리 로쓰는 남성작가들의 전유물인 로맨스와 소넛과 같은 문학 장르에서 남성 주인공들 대신 여성 주인공들을 설정하여 그들을 통해 남성적 가치와 젠더의 역학관계를 변용시키고 독창적으로 여성의 의식, 여성적 상상력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일견 로쓰의 소넛은 기성 남성 작가들의 소넛과 유사한 듯하나, 그들의 작품과는 중요한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페트라르카식 소넛은 남성 연인의 사랑의 욕망과 열정, 좌절과 환상 또는 때로 궁정에서의 입신출세에 대한 고뇌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여성 연인은 남성 연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페트라르카식 작품 속에서는 언제나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로쓰는 이와 같이 남성 중심적인 연애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 연인을 사랑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여인 화자의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Lewalski 252)으로 삼고 있다. 우선 팸필리아의 노래에서는 기존 소넛에서와는 달리 연인의 사랑을 구하고 얻으려는 노력이 없으며 연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도 없다. 그리고 페트라르카

---

이 끄는 주제는 젠더 문제이다. 남성인 삼촌 필립 시드니와 여성인 조카 메리 로쓰의 두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글들로는 Naomi J. Miller, “Rewriting Lyric Fictions: The Role of the Lady in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Rebecca Laroche, “Pamphilia across a Crowded Room: Mary Wroth’s Entry into Literary History”; Paula Harms Payne, “Finding a Poetic Voice of Her Own: Lady Mary Wroth’s *Urania* and *Pamphilia to Amphilanthus*”; Michael G. Brennan, “Creating Female Authorship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en Jonson and Lady Mary Wroth” 등이 있다.

식 소넷에서 남성 연인들이 흔히 취하듯이, 화자가 종처럼 자신을 낮추어 차갑고 냉정한 연인에게서 동정을 구하지도 않는다. 전형적인 소넷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이별, 연인의 부재, 사랑의 배신, 질투 등의 주제가 밤, 눈물, 바다, 별, 잠, 항해, 잔인한 큐피드 등 전형적인 소넷 이미지들에 의해 그려지고 있지만, 이 전통적인 담론을 통해 로쓰는 여성인 팸필리아의 사랑의 욕망을 세세히 분석하고 그녀의 성실성, 그녀의 사랑의 정직함을 탐구하고 있다. 소넷의 초점은 오로지 팸필리아의 변함없는 사랑에 맞추어져 있고 남성 연인의 이름은 제목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반부에서는 독자들이 이미 『유래이니어』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팸필리아는 성실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며 고뇌하며 고통 받고 있으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유래이니어가 충고했듯이 팸필리아는 자신의 사랑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신적인 차원으로 향하게 한다. 연작 소넷 총 103편의 시는 대략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팸필리아의 꿈속의 환시로 시작한다.

잠 속에서 날개달린 욕망이 끄는 마차를  
나는 보았네. 마차에는 찬란한 “비너스”, 사랑의 여왕이 타고  
그녀 발치에는 그녀 아들이, 그녀가 높이 쳐든  
불타는 심장에 불길을 계속 더하고 있었다.

다른 모든 심장들 보다 유독 더 타오르는 심장을  
여신이 집어 들어, 그 심장을 내 가슴 속에 넣었고,  
그러자 아들이 내 가슴을 담았네, 그녀는 이렇게 우리가 승리해야만 한대라고  
했네.

그는 어머니께 복종하였고 가없는 내 심장은 그에게 순교당하였네.  
잠에서 깨어나 나는 그것이 꿈으로 사라지기를 원했지.  
허나 아아, 그 이후 나는 사랑하게 되었네.

In sleepe, a Chariot drawne by wing'd Desire,  
I saw; where sate bright *Venus*, Queene of Love,

And at her feete her Sonne, still adding Fire  
To burning hearts, which she did hold above,

But one heart flaming more then all the rest,  
The Goddess held, and put it to my breast,  
Dear Sonne now shut, said she, thus must we winne;

He her obeyd, and martyr'd my poore heart.  
I waking hop'd as dreames it would depart,  
Yet since, O me, a Lover have I beene. (P1)

로쓰의 연작 소넷에는 등장하는 다양한 큐피드의 이미지들은 연작 소넷을 관류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양상들을 짚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첫 소넷에서부터 큐피드는 화자에게 그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첫 소넷 이후 55편의 시들은 큐피드가 심어놓은 사랑의 불길에 의해 팜필리아의 감정들이 갈등을 겪는 것을 극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큐피드는 팜필리아의 사랑의 욕망, 그리고 그 힘과 동일한 존재이다. 그녀는 앰필란써스가 아니라 이후 독재자로 그녀의 마음에 군림하여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는 큐피드에게 정복당한 것이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런데 폭군적인 큐피드의 힘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것 같지만, 팜필리아에게 있어서 사랑은 열정적인 감정에 맹목적으로 휩싸이는 것은 아니다.

고백컨대, 나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것은 그대의 의지였소

.....

허나, 경애하는 신이여, 나는 그대의 소년스러움을 경멸하오  
그대의 마법에는 복종하나, 그대의 먼눈은 사랑하지 않소

I doe confess, t'was thy will made mee chuse;

.....

Yett this Sir God, your boyship I dispise;

Your charmes I obay, butt love nott want of eyes. (P9)

연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해 눈이 멀게 하고 연인들을 여러 가지 꿀탕을 먹이는 일들을 꾸미는 큐피드를 로쓰는 거부하고 자신의 사랑의 욕망, 자신의 의지로 택한 사랑이 바로 사랑이 발휘하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도록 만든다. 연작시의 첫 번째 부분에서 화자인 팸필리아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의 질곡을 겪은 후, 사랑은 번덕스럽고 장난스러운 큐피드의 농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불꽃이 그들의 가장 즐거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마음을 이용할 때”(P55. 5-6) 보다 순수해지고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작 소넷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의 열정의 어두운 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화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투하고 절망에 빠진다. 앞선 부분에서 장난꾸러기로 연인들을 꿀탕 먹이는 큐피드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므로 불구하고 화자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꼭예사 같은 사랑”(P64. 1)이며 심술궂게 장난치는 어린아이인 큐피드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사랑에 빠진 화자는 이렇게 사랑이 장난을 칠 때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으며, 자신도 큐피드와 같이 유치하게 되어 그 장난에 말려들고 마는 자신을 발견한다(P64. 13-14).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말려 혼란을 겪은 후, 소넷 세 번째 부분에서 팸필리아는 다시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왕과 같은 사랑의 힘을 노래한다. 세 번째 부분은 14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4편은 이탈리아의 운율 형태인 코로나(corona) 형식 즉, 첫 소넷의 마지막 행이 그 다음 소넷의 첫 행에서 되풀이 되어 하나의 왕관과 같은 원을 이루는 시 형식을 모방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사랑의 가치, 그 곳에서는 끝없는 축복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다스리고, 덕으로 창조된  
 천상의 불꽃에 의해 유지되며, 진리와 결합하여, 뛰어난 가치에 의해 강화된  
 욕망에 의해 꽃피우고, 결코 변하지 않는 생각 속에 불타는  
 신중함으로 새로워져서, 질투의 가시는 이곳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리.

The worth of love, where endles blessednes  
 Raines, and commands, maintaind by heavnly fires  
 Made of vertu, join'de by truth, blowne by desires  
 Strengthened by worth, renued by carefullnes  
 Flaming in never changing thoughts, briers  
 Of jelousie shall heere miss wellconnes, (P84. 3-8)

화자의 사랑은 유치한 큐피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며, 천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성실과 진리, 신중함 등의 덕에 의해 그 사랑이 유지된다. 여러 가지 두려움, 의심, 질투 등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사랑은 결국 변함없는 성실에 의해 계속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성실이 군주로서 지배하고 / 다스리고 시기심의 가시에 해를 입지 않는다”(P90. 7-8)고 확신하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질투와 같이 사랑의 방해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의심하곤 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이 끝을 맺는다.

자신의 사랑을 이상화하려는 시도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팸필리아는 마지막 부분에서 고통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감정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 마지막 부분의 소넷들은(P95-103) 그 어조가 매우 우울하고 어두우며, 구름, 그림자, 어둠과 같은 이미지로 덮여 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소넷에 이르러 팸필리아는 일말의 희망을 찾는다. 화자는 자신의 뮤즈에게 이제 “충실한 사랑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쉬라”(P103. 2)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탐구가 내적인 갈등을 넘어서 “영원한 선”(6)을 보여줄 진리를 찾도록 그 탐구의 방향을 돌리도록 한다.

비너스의 담론과 그녀의 태양을  
 젊은 초심자들에게 남겨주어 그들의 지성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영감을 받아, 그 불꽃으로부터  
 그들이 승리하여 얻은 운명들을 쓸 열기를 얻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떠나라, 지난 일들은 그대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이제 그대의 성실이 그대의 명예임이 증명되게 하라.

Leave the discourse of Venus, and her sunn  
To young beeginers, and theyr brains inspire  
With storys of great love, and from that fire  
Gett heat to write the fortunes they have wunn,

And thus leave off, what's past showes you can love,  
Now lett your constancy your honor prove. (P103. 9-14)

이 마지막 소넷에서 화자는 비너스와 그의 아들(“sun”과 “son”의 말놀이)을 떠난다고 했지만, 이 말은 인간적인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사랑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 가치는 천상적인 사랑일 수 있고 또 진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무엇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남성 연인의 불성실과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그녀 자신의 성실성, 자신이 택한 사랑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 성실성이 자신을 보다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고 있다 하겠다.

로쓰는 연작 소넷에서 여성의 사랑의 욕망을 연애시의 중심으로 삼고 있고 여성 연인은 그 사랑을 통해 감정적, 정서적, 인격적 혼란을 겪으며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도록 그녀를 지탱시켜준 성실성을 통해 무질서하고 유치한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며, 그 경험의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주제어:** 메리 로쓰, 필립 시드니 경, 메리 시드니 허버트, 『유래이니아어』, 『앰필란써스에게 부르는 팸필리아의 노래』, 로만스, 연작 소넷

## 인용문헌

- Beilin, Elaine V. "‘The Onely Perfect Vertue’: Constancy in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Spenser Studies* 2 (1981): 229-45.
- \_\_\_\_\_. *Redeeming Eve: Women Writers of the English Rena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 Benson, Pamela Joseph. *The Invention of the Renaissance Woman: The Challenge of Female Independence in the Literature and Thought of Italy and England*.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92.
- Brennan, Michael G. "Creating Female Authorship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en Jonson and Lady Mary Wroth." Ed. George L. Justice and Nathah Tinker. *Women’s Writing and the Circulation of Ideas: Manuscript Publication in England, 1550-1800*. Cambridge: Cambridge UP, 2002. 73-93.
- Cañadas, Ivan. "Questioning Men’s Love in Sir Philip Sidney’s *Astrophil and Stella* and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 13 (2005): 99-122.
- Ferguson, Margaret W.,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ed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s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Chicago: U of Chicago P, 1986.
- Gallagher, Catherine. "A History of the Precedent: Rhetorics of Legitimation in Women’s Writing." *Critical Inquiry* 26 (2000): 309-27.
- Hannay, Margaret Patterson, ed. *Silent But for the Word: Tudor Women as Patrons, Translators, and Writers of Religious Works*. Kent, OH.: Kent UP, 1985.
- \_\_\_\_\_. "‘Your vertuous and learned Aunt’: The Countess of Pembroke as a Mentor to Mary Wroth." *Reading Mary Wroth: Representing Alternatives in Early Modern England*. Ed. Naomi J. Miller and Gary Waller.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1. 15-34.

- Haselkorn, Anne M. and Betty S. Travitsky, eds.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0.
- Hyunggi, Park. "Marriage in Early Modern England: The Traffic in Daughters in the *Arcadia* and the *Urania*." *Milton Studies* 11 (2001): 1-23.
- \_\_\_\_\_. "Contingent Desire: Love and the Paradox of Petrarchanism."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9 (2002): 119-44.
- Jordan, Constance. *Renaissance Feminism: Literary Texts and Political Models*. Ithaca: Cornell UP, 1990.
- Jusserand, J. J. *The English Novel in the Time of Shakespeare*. New York: AMS, 1965.
- King, Margaret L. *Women of the Renaissance*. Chicago: U of Chicago P, 1991.
- Krontiris, Tina. *Oppositional Voices: Women as Writers and Translators of Literature in the English Renaissance*. London: Routledge, 1992.
- Laroche, Rebecca. "Pamphilia across a Crowded Room: Mary Wroth's Entry into Literary History." *Genre* 30 (1997): 267-88.
- Lamb, Mary Ellen. *Gender and Authorship in the Sidney Circle*. Madison: U of Wisconsin P, 1990.
- Levin, Carol and Jeanie Watson, eds. *Ambiguous Realities: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Detroit: Wayne State UP, 1987.
- Lewalski, Barbara K. *Writing Women in Jacobean England*. Cambridge: Harvard UP, 1993.
- MacArthur, Janet. "'A Sydney, Though Unnamed': Lady Mary Wroth and Her Poetical Progenitors." *English Studies in Canada* 15 (1989): 12-20.
- Maclean, Ian. *The Renaissance Notion of Woman*. Cambridge: Cambridge UP, 1980.
- Miller, Jacqueline T. "Lady Mary Wroth in the House of Busirane." *Worldmaking Spenser: Explorations in the Early Modern Age*. Ed.

- Patrick Cheney and Lauren Silberman. Lexington, KY: UP of Kentucky, 2000. 115-24.
- Miller, Naomi J. "Rewriting Lyric Fictions: The Role of the Lady in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Ed. Anne Haselkorn and Betty Trevitsk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0. 295-310.
- Miller, Shannon. "'Mirroures More then One': Edmund Spenser and Female Authori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Worldmaking Spenser: Explorations in the Early Modern Age*. Ed. Patrick Cheney, and Lauren Silberman. Lexington, KY: UP of Kentucky, 2000. 125-47.
- Montrose, Louis A.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the Shaping Fantasies of Elizabethan Culture: Gender, Power, Form."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s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Ed.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Chicago: Chicago UP, 1986. 65-87.
- Payne, Paula Harms. "Finding a Poetic Voice of Her Own: Lady Mary Wroth's *Urania* and *Pamphilia to Amphilanthus*." *Pilgrimage for Love: Essays in Early Modern Literature in Honor of Josephine A. Roberts*. Ed. Sigrid King.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209-20.
- Prior, Mary, ed. *Women in English Society 1500-1800*. London: Routledge, 1985.
- Quilligan, Maureen. "Feminine Endings: The Sexual Politics of Sidney's and Spenser's Rhyming."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Ed. Anne M. Haselkorn, and Betty S. Travitsk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0. 311-26.
- Roberts, Josephine A. "Radigund Revisited: Perspectives on Women Rulers in Lady Mary Wroth's *Urania*."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 Counterbalancing the Canon*. Ed. Anne M. Haselkorn and Betty S. Travitsk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0. 187-207.
- \_\_\_\_\_. "‘The Knott Never to Bee Untide’: The Controversy Regarding Marriage in Mary Wroth’s *Urania*." *Reading Mary Wroth: Representing Alternatives in Early Modern England*. Ed. Naomi J. Miller and Gary Waller.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1. 109-34.
- \_\_\_\_\_. *The Poems of Lady Mary Wroth*.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3.
- \_\_\_\_\_. *The First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by Lady Mary Wroth*. Binghamton, NY: State U of New York P, 1995.
- \_\_\_\_\_. *The Second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by Lady Mary Wroth*.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 Roberts, Josephine A. and Margaret Patterson Hannay. "Lady Mary Wroth." *Teaching Tudor and Stuart Women Writers*. Ed. Susanne Woods and Margaret P. Hannay. New York: MLA, 2000. 145-52.
- Rose, Mary Beth, ed.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Lite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yracuse: Syracuse UP, 1986.
- Waller, Gary. *The Sidney Family Romance: Mary Wroth, William Herbert, and the Early Modern Construction of Gender*. Detroit: Wayne State UP, 1993.
- Waller, William Chapman. "An Extinct Country Family: Wroth of Loughton Hall." *Transactions of the Essex Archaeological Society*, n.s.7 (1903): 156-80.
- Wiesner, Merry E.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Wilcox, Helen,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500-1700*.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Mary Wroth and Her Transformation of Romance and Sonnet

Abstract

Jin-Ah Lee

Lady Mary Wroth is the first English woman writer to have published an original work of romance,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1621) and a sonnet sequence, *Pamphilia to Amphilanthus* (1621). As a member of the illustrious Sidney family, "Daughter to the right Noble Robert Earl of Leicester, and Niece to the ever famous, and renowned Sir Philip Sidney knight, and to the most excellent Lady Mary Countess of Pembroke," she was endowed with literary and musical talents. This primary identity left a decided mark on all her writing. The major literary precedents of her works were her uncle and aunt's romance *The Countess of Pembroke's Arcadia* and her uncle's sonnet sequence, *Astrophil and Stella*. Mary Sidney was well-known literary patron, edited her brother's *Arcadia* and completed the translation of the Psalms after his death. She was a literary mentor for Mary Wroth.

However, Wroth ventured into a totally different literary arena in which men had always been the creators and women the passive recipients of the finished artefact. This was the world of chivalric romance, love, and Petrarchan lyrics. *Urania's* intricate and interlaced narratives follow the fortunes of two central heroines, Pamphilia and Urania, as well as numerous other characters, whose actions range over the Mediterranean and Eastern Europe. Pamphilia, a symbol of constancy, is always faithful to her love, her own self who is "all-loving." She is a queen, who inherits the crown and kingdom of her uncle and is a poet, and whose love for her fickle first cousin Amphilanthus occasions much of the

travelling, story-telling, and exchange of love lyrics. She is also the narrator in the sonnet sequence *Pamphilia to Amphilanthus*, appended to *Urania*. Especially, in her sonnet sequence Wroth reversed the customary gender roles of the sonnet sequence. The complaining Petrarchan lover attempting to court a cool, unwilling woman is replaced by a woman who wrestles with her own emotions and with the absence of her beloved. In Wroth's own life the role of Amphilanthus seems to have been played by her first cousin, William Herbert, third earl of Pembroke, the father of two of Wroth's three children.

In these two related works, Wroth explores "spider love" that can entrap and entangle, most frequently from a woman's standpoint. Thereby, Wroth investigates female subjectivity and autonomy. With these works, she departed from traditional women's genres such as epitaph and translation, helped to open up the English literary world to women, and allowed female writers to move beyond religious subject matter.

#### Key Words

Mary Wroth, Sir Philip Sidney, Mary Sidney Herbert, *Urania*, *Pamphilia to Amphilanthus*, romance, sonnet sequence.